

정유기업, 유류세금 인하 “긴장”

인수위, 정권출범 이전 10% 인하 표명 ... 고유가 비난여론 직격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서민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유류세 10% 인하를 공언하고 나서자 정유업계는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월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정권 출범 전이라도 유류세를 1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면서 정유업계는 가격 인하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고유가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정유업계로 쏟아질 것이라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고 나면 당장 정유업계는 무엇하고 있냐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8년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금을 인하해도 고유가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세금인하에 따른 가격 인하폭이 휘발유는 리터당 80여원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수준인데다 당장은 고유가 논란이 잠잠해지더라도 유가가 오르면 또 논란이 시작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고유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 실상은 과도한 유류세금이 원인이라고 정부로 슬쩍 떠넘겨왔는데 이제는 홀로 받아내야하는 처지가 됐다.

그리고 유류세금 인하로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주유소들이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으면 세금 인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주지 않고 빼앗간다는 비난이 정유기업으로 몰려올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주유소가 세금 인하분을 마진으로 확보하더라도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정유기업들의 해명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일단 유류세금 인하와 관련해 시선을 끌지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02>